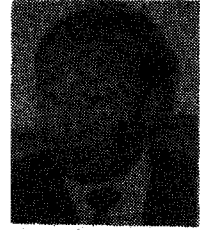


# 녹영 유통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안 덕 균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건강을 제일로 꼽게 된다. 이 중에서 블로장수의 명약으로 알려진 녹영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어렵푸시나마 다 좋은 약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경사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게도 여겨지는 것은 녹영의 소모량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할때에 그 녹영의 약효평가를 새삼 되 찾아보게 된다. 이것이 의식의 문제인지 실제 효능의 탁월성인지를.

몇해전에 시판녹영의 상당수가 변조되어 판매되었다.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수입되는 녹영의 일체를 검사후에 유통시키고 있어서 지금까지 무리 없이 시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녹영의 유통과정과 국산 녹영의 생산 증대과정을 분석코져 한다.

## 1. 녹영의 정의

흔히 녹영이라고 할때에 숫사슴의 머리에서 뜯어나는 빨 일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알고있는 사람이 있으나 녹영은 갓자란 사슴빨이 두갈래로 말안장과 같이 자랄때에 절단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우수한 품질만을 생산해 낼때에 수요를 따를 수 없어서 다 성장하여 각화되기 직전의 것을 잘라서 절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하단의 빨은 녹각이라고 지칭해야 타당한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국내의 양륙사육자들이 녹영 판매를 기대하다가 실기를하여 각질화되어가는 녹영을 절단하는 경우와 수입품으로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소련산의 중하대를 보면 녹영으로서의 효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 바로 이런것은 녹각으로 효능 또한 녹각에 준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 2. 녹영의 수입경로와 수입량

녹영은 주로 소련, 중국, 뉴질랜드, 알라스카 등지로부터 국내에 수입되며 소련, 중국산은 홍콩을 통한 간접수입을 하고 뉴질랜드, 알라스카산은 현지에 파견된 수입상인들이 직접수입을 한다. 그러나 건조시설이 빈약한 곳에서는 생녹영을 절단한 후에 판매하고 건조는 수입상들이 하는 예도 있다.

중국산에서는 한곳에서 1000수에서 많게는 3000수까지 사슴을 길러서 적기에 채취한 후 각 지방마다 분포되어있는 중국의약보건화공진출수출공사를 통하여 수집되고 여기서 홍콩 등지와 교역이 이루어진다. 뉴질랜드는 각지마다 양륙업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교육과 구매, 그리고 권익과 개발을 관장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빨의 성장속진과 품종개량에 역점을 두며 고가의 이용에 큰 비중을 두기도 한다.

홍콩이나 주산지에서 직접 수입할때에는 항공

편을 이용하며 한국의 수입상은 통과후 검사를 실시하고 중간상인들에게 배분하기도 하며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88년도의 녹용수입량은 44,428 kg으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실제 유통되어지고 있는 밀수녹용과 점층하는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사가지고 들여오는 저질품의 절편녹용 가지를 합하면 대략 70 ~ 80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 3. 국산녹용 생산량

사슴의 품질을 개량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저하는 노력은 양록업자와 학계의 연구결과에 힘입어 88년도에 생산량이 9,258 kg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7% 상승된 것으로서 해마다 그 수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1995년에는 현재의 수준에서 생산량이 전수요량의 80%에 이르고 2000년에는 100%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국산녹용이 부족하여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 약 10년후에 자급자족하게 되면 더욱 값싸고 우수한 품질의 약재로 보건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 4. 유통구조의 개선점

녹용의 유통개선에 앞서 녹용이 축산물이나 의약품이나부터 설정해야 할 것이다. 뿔이 사슴의 머리에 붙어있는 때에는 축산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미 절단되어 건조되었을 때에는 의약품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매하는 사람은 의약인이 담당해야 한다.

적기에 채취한 녹용은 냉동건조나 저온건조법에 의하여 건조시킨다음 원형대로 판매하

거나 절단 절편해서 판매하는데 이 때에 신용과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고있는 법정인에 의해서 취급되어야 한다. 이 자격은 국가공인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입녹용과 국산녹용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조합이나 회사설립이 긴요하게 요청된다. 그래야만 자국산의 생산능력을 높이고 외국산의 수입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또 사슴은 녹용만을 위해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고기와 기타 부산물을 상품화시켜야 한다.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양록업자는 하나가 되어 유통수급을 위한 조합이나 회사설립에 구성원이 되어야 하고 이 단체에서만 녹용의 수집과 건조 판매를 관장케 해야 한다.

이 단체는 중앙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시군, 읍 단위의 지부를 두어야 한다. 중앙회는 기획과 인사관리 교육을 관장하며 또한 사육은 물론 유통의 일체를 통괄할 수 있어야 한다.

건조된 녹용은 그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법정 검사관에 의해서 등급이 이루어져야만 공인을 받게 된다.

녹용은 생육과정에 따라서 품질상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선별 등급이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소비자와 생산자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다.

그후 절단 절편하여 포장할때에 단위는 20그램 100,200,300,500그램의 순서로 하게 해야되는데 그 이유는 한약과 배합시에 활용을 용이하게 유도하기 위함이며 대량을 투여할 때에도 유효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용은 종류와 부위에 따라서 유효성과 값에서 차이가 나므로 상대 중대를 나누어 절단 절편하여 판매해야 되고 하대는 녹각으로 이용되어야만 합당하다. 이 부위는 이미 각화현상이 두

드러서서 살 잘라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용해도도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가지는 가지대로 절단 절편해서 포장해야만 소비자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물론 약효를 추인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포장용기에는 녹용의 종류, 양륙자의 주소, 이름과 채취시기를 명기해야 하며 검사자의 명칭과 날짜와 이용량을 표기해야만 공인을 받을 수 있다. 포장은 통풍과 수분흡수는 물론 방충효과까지 고려되어야 보관상에 문제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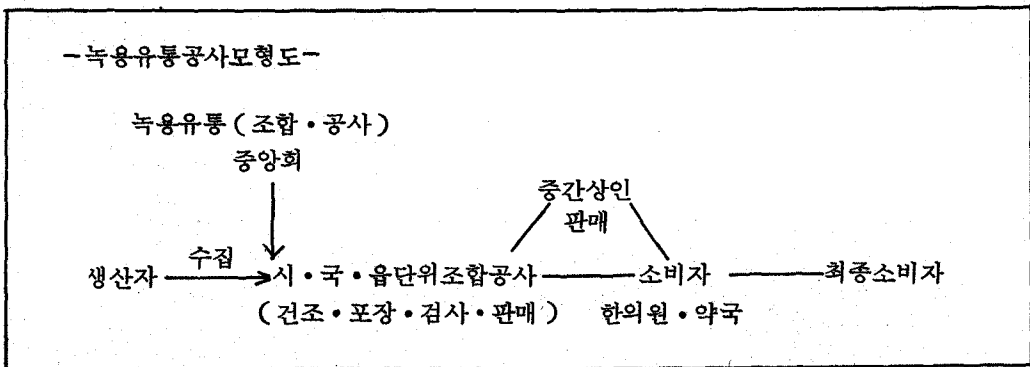
그리고 생산자에서 구매자인 조합이나 회사에 거래될 때에는 적정수준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

다. 이 이익은 종사원의 생활과 권익과 장차의 발전을 위한 연구기금까지도 포함되어야 장래가 보장된다. 환언하면 생산비에서 구매인건비, 상차 하차비, 운임비와 이득의 배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군·읍단위에서 집하된 녹용은 소비자에게 직접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도시같은 곳에서는 지역별로 중간상을 둘 수 있다.

이와같은 공정성을 기할때만이 최종소비자는 품질과 가격을 믿고 사용하도록 국민의 건강에 이환이 하게되는 것이다.

이상의 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품질을 고급화하고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입녹용의 저질품 또는 국내산도 건조시켜서 상품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대담하게 폐기시켜야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수반하여 양륙업자의 교육이 뒤따라야 하는데 여기서는 위생과 품종개발, 품질의 향상, 사료등등

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이 배려되어야 권익과 이득이 점차 개선되어감을 알게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선진을 향한 녹용의 품질개선과 유통의 현대화를 꾀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사용할 때만이 이 사회와 개인은 건강하게 되는 것이라 믿어진다. ☆

(경희대 한의대 교수)